

1962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류상영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국문요약 |

1962년 6월 박정희에 의해 시도된 통화개혁은 1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통화개혁의 발상과 집행 및 좌절 과정을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맥락 하에서 팽배하였고 박정희가 '상상'하고 동원하였던 민족 및 민족주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 박정희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식민지 청소년으로서의 비애, 만주에서의 경험, 권력의지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화개혁 과정에서 박정희가 가졌던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시장 및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요약되었다.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통화개혁은 결국 미국의 압력과 그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목표 설정과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물론 그가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의식과 형식에도 일정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남겼다.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과 당시 전개되었던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을, 의식과 행태 및 정책 등 민족주의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들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주제어 | 박정희, 통화개혁, 민족, 민족주의, 미국

* 이 논문은 2020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1. 서론 : 통화개혁에 어떻게 민족주의가 반영되었는가?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6월 10일 국내자금 조달을 위하여 통화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7월 13일 봉쇄 계정이 모두 해제됨으로써, 이 조치는 한 달여 만에 무산되었다. 박정희는 왜 통화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통화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 혹은 좌절되었을까? 그리고 당시 이 같은 급진적인 경제정책과 대담한 정치적 전략이 선택되고 집행된 배경과 과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동안 경제학이나 개인사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 연구에서 민족주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구성하는 의식과 정책 및 제도 등의 원형과 변화를 중심으로 위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통화개혁은 박정희의 집권 기간 중에서도 매우 짧은 기간에 발생하였던 사건이고, 그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다른 사안과도 연관성이 적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배경과 의미가 곧잘 순전히 경제학적 시각(배영목 2010)이나,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개인적인 통치스타일에 기초하여 분석되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역사적 맥락 없는 사건과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단순하고 일회적인 현상이나 사건도 복잡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연속성을 내포할 수 있다. 통화개혁도 당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내면의 의식 혹은 정서, 정치경제적 구조와 한계, 역사적인 연속성과 굴절을 비교적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작지 않다.

이 연구는 박정희, 유원식, 김정렴 등 당시 주요 관련자들의 회고록과 발언 내용, 정부의 회의자료 및 법안, 신문 및 잡지의 기사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 자료들은 통화개혁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과 제도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당시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적 정서 및 의식 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의 자료 이외에, 해당 시기의 미국 국무성 외교문서에는 통화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통화개혁 집행과정에서 나타

난 한미간의 갈등이 잘 기록되어 있다. 한편, 민족주의 이론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기존 연구들과 한국의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통화개혁 사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둘러싼 민족주의 논쟁을 간략히 검토하고 박정희가 생각하는 민족 및 민족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은 통화개혁을 통하여 표출되었던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될 것이다. 그의 소년시절부터의 개인사와 만주군관학교에서의 경험, 그리고 당시 한국 사회에 확산되었던 민족 및 민족주의의 배경 등이 분석될 것이다. 제4장은 통화개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보여진 한미간의 갈등과 구조적 제약을 다루고자 한다.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박정희와 이를 경계하며 관리하려는 미국 측의 생각과 전략도 분석될 것이다. 박정희가 미국, 시장, 민족주의에 대하여 가졌던 의식이나 정책의 변화들이 포착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통화개혁의 좌절에 나타난 박정희의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과 이의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II.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논쟁과 박정희의 민족주의

1.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에 관한 쟁점과 시각들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분석 시각과 주체, 정치 전략, 시대적 맥락과 해당 공간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매우 애매하게 규정되고 사용되고 있다¹⁾. 민

1) 민족주의의 다양한 이론과 역사, 쟁점 등에 대한 개괄적 분석과 소개로는 Anthony D. Smith(2010)와 Umut Özakirimli(2010) 등이 있다. 이 논문 작성과정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준 대표적 연구 Benedict Anderson(2016), John Breuilly(1994), Hobsbawm, E. and Ranger, I.(1983), Liah Greenfeld(2001), Albert Breton and Gianluigi Galeotti, eds.(1995) 등이 있다.

족 혹은 민족적이라는 개념도 단순하거나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현실로서 존재하는 소위 민족문제(national questions) 혹은 민족현상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복잡하게 상징되고 표출된다. 게다가 민족주의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민족은 존재할 수 있고 전통적 개념의 민족이 없는 사회에서도 민족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은, 그만큼 논쟁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다. 적어도 소위 민족이나 민족주의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떤 정치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의 기원이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에는, 민족 및 민족주의 이론이 갖는 보편적 성격과, 한국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한홍수 2015).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민족의식 혹은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였는가에 대한 논쟁²⁾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인쇄물에 등장한 것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하여 국권을 침탈당하고 붕괴한 해인 1900년 1월 12일 황성신문의 사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mid 2002, 173). 그리고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동인에 대한 논쟁은 1876년 개항과 문명개화를 중시하는 외압론과,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자생적인 개혁 이념과 개혁 세력을 중시하는 내

-
- 2) 한국에서 민족 및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각종 개혁조치가 시도되었던 대한제국 시대부터 등장하였고, 민족주의 활동도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강화된 일본의 식민지 지배전략에 대하여 국권회복과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확산되었다. 박은식은 <한국통사(1915)>에서 민족‘혼’을 강조하였고, 의열단의 선언문에 해당하는 <조선혁명선언(1923)>을 저술했던 신채호는 민족 ‘정신’을 강조하면서 한국 민족의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한 바 있다. 1930년대 이후 정인보는 동아일보 연재물 <5천년간 조선의 열(1935-1936)>에서 민족 ‘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안재홍은 민족을 혈연·지역·운명 공동체로 정의하면서도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민족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문일평은 민족문화와 조선정신의 핵심을 조선 ‘심’으로 규정하고 조선심의 결정체로 한글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주장들은 대체로 민족과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의식’이라는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신문이나 잡지를 매개체로 많이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출판물 민족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압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³⁾. 둘째, 한국의 민족주의와 근대성,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쟁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크게 보면 한국 근대화의 동력은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에서 창출되었고 한국 민족주의는 근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근대화와 민족주의가 한국역사에서 상호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셋째,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은 분단과 통일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분단의 기원과 민족통일의 과제에 연관된 민족주의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동서 냉전의 국제질서와 강대국 사이의 패권다툼이 한반도 분단을 가져왔다는 외인론과,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과 국내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분단의 기원을 찾는 내인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은 민족주의의 기원과 범주에 대한 논쟁으로 직결될 수 있다. 근대 민족주의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근대 민족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 정치이념, 권력, 국가 등의 개념이 현실 정치에서 혈연 중심의 상징적인 민족 및 민족주의 개념을 무력화시킨 현상으로 민족분단을 해석할 수 있다. 민족 상징주의에 의하면, 정치적 분단과 무관하게 전통, 문화 등 민족주의의 핵심 속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위의 이론적 논쟁들은, 서구에서 전개된 것처럼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하여 엄밀한 개념 규정과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고,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간 주체들의 이념이나 운동을 설명하는데 민족주의 개념을 원용하는 역사적 서술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명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사회에서 발현되었던 민족 내지는 민족주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해당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깊이 있게 묘사해 낼 것인가가 학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의 특정한 공간과 시대적 맥락 속에서 박정희가 생각한

3) 항일운동과 민족국가 건설기에 있어서 역사학자들의 민족 개념 등에 관해서는,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1994)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한말 변혁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 통일운동과 분단체제 등을 민족주의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송건호·강만길 편(1982, 1983), 박현채·정창렬 편(1985), 최상룡(1989), 서중석(1992) 등이 있다.

민족과 민족주의를 그려내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민족 및 민족주의를 어떻게 개념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을 포착해 내기 위하여 필자는 민족의 개념을 “혈통, 전통, 언어, 문화, 의식 등을 공유하며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중시하는 민족의 핵심 구성 요소는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민족의 상징적 역할은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 대체로 단군신화에서 현재의 분단된 현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민족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정치 주체에 따라 민족 구성 요소 사이의 우선순위는 달라졌고 민족의 속성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박정희가 한국 민족의 패배 의식을 비판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위에서 규정한 민족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필자는 민족주의를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민족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으로 개념 규정하고자 한다.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키고, 구성원 공동의 가치를 확대하고 민족적 위상을 높이는 것 등이 민족주의적 인식과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크게 보면,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 민족자결 외교, 해방과 민족건설, 경제발전, 민주주의 실현 등은 해당 시기 한국의 민족주의가 추구하였던 핵심 목표이자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화개혁 과정에서 박정희가 보인 미국식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도 그가 생각한 독특한 민족의식과 민족주의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 개념에 따라 역사적 사건과 주체의 행위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당시 민족의식 혹은 민족주의라는 포괄적인 표현하에 발생하거나 추진되었던 특정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전략을 되도록 깊고 풍부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민족주의가 동원되고 발현되는 수준을 의식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수준까지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한국의 민족 및 민족주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스미스는 민족 상징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mith 2010). 반면, 근대주의 시각으로 분류되는 앤더슨은 민족과 민족주의를 문화적 인공물로서 ‘상상된 공동체’라고 정의하였으며(Anderson 2016), 홉스봄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전통도 사실은 상당히 최근에 발명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민족주의를 권력 강화와 충성심 유발을 위한 국가의 지배수단으로 인식하였다(Hobsbawn and Ranger 1983). 하지만, 필자는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그동안 해외에서 정착되어온, 세 가지 시각(원초적 민족주의, 민족 상징주의, 근대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이론적으로 명쾌한 개념 규정보다 역사적 사실을 더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하여, 한국 민족주의에서는 이 세 가지 시각의 핵심 요소들(혈연, 문화, 근대화, 정치권력 등)이 사회적 쟁점이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서 발현되고 진화되었다는 견해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2. 박정희의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특징과 기원

박정희와 관련한 한국 민족주의 논의는 대체로 박정희가 경제개발과 정권안정을 위하여 민족주의를 동원하였다는 해석으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박정희가 민족과 민족주의를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채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 박정희의 일제강점기의 이력과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 경력, 군사쿠데타 이후의 정치행위 등은 박정희와 연관된 민족, 민족적, 그리고 민족주의 등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박정희에 대한 해석을 더욱 논쟁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박정희와 한국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사실적 논쟁은 쉽게 정리되기 힘들다.⁴⁾

4) 정치학계에서 박정희와 민족주의에 관한 심도있는 학술연구로는 전재호와 김보현의 연

박정희의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은 이중적이었고 때로는 매우 모순적인 형태로 발현되었다. 그에게, 민족은 한편으로는 혈연과 전통에 기초해 주어지고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운명적이고 자연적인 공동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민족의식 및 국가전략 등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개조될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로 인식되었다. 일제 강점기 이래로 그에게 비친 한국 민족의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타개하기 위한 그의 행동의 내면에도, 식민지 및 가난한 나라의 청소년으로서 느끼는 개인적 비애나 원초적 민족의식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에게 있어서 전통은 버려야 할 대상이면서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전략에 따라 재창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박정희가 무엇을 민족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는 그의 구체적인 발언, 행동, 정책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청소년 시기부터 집권 이후까지 박정희의 이 같은 이중적인 인식과 모순적인 행동이 줄곧 지속되는데, 거기에는 박정희 스스로가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박정희 1963, 292) 이라고 말한 가난의 한과 성장 과정, 만주에서의 군인 경험과 일제 교육, 그리고 강한 권력욕이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변수, 그와 한국이 처해 있던 국내적 조건과 국제적 현실이라는 구조적 변수와 시대적 맥락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가 대표적이다. 본 글은, 두 학자의 연구가 갖는 학술적 시각과 가설에 동의하면서, 통화개혁 사례를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재호(2000)는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 박정희를 ‘반동적 근대주의자’로 규정하지만, 박정희가 민족주의자인가 아닌가의 질문은 올바른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한편, 김보현(2006)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진보적 민족주의 성향의 논자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편향된 신화를 비판하면서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민족주의의 내재적 문제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 역사학과 개인사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서중석(2016)은 박정희를 일본의 국수주의적 이념으로 무장된 반민족주의적 인물로 묘사한 반면, 이선근(1977)과 황용주(안경환 2013)는 박정희를 한국적 민족주의자로 영웅시하였다. 에크트(2016)는 박정희를 만주의 군국주의를 한국에 이식한 근대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로 평가하였다. 반면, 박정희의 친구였지만 배신당하였다고 생각한 이병주(1991)는 그를 일본제국의 용병으로서 민족의 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정희에게서 민족은, 역사적으로 구축된 점이 없지 않지만, 근대화와 정치권력을 위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재발명해야 할 대상이었다. 박정희는 1978년 6월 30일 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 치사나 1965년 한글날 담화문을 통하여, “조상의 빛난 얼과 자주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새로운 문화 창조와 민족중흥을 이루자”고 주장함으로써, 혈연, 전통, 언어, 문화 등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자연적 공통체로서의 민족의 개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한국에서의 민족의 등장 과정과 역사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다. 박정희가 1964년 개천절에 행한 연설에는 민족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근세 한국역사에 대하여 “밖으로 약육강식의 열강이 각축하는 분쟁의 희생이 되기도 하고 안으로는 분파와 상잔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화의 과정을 밟지 못한 채, 마침내는 제국주의 식민지로 병탄 되어 반세기를 수난 속에 살아온 치욕의 연쇄”로 규정하였고,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사대사상·배외관념·안일주의로 표현되는 고질에 연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국민 각자의 정신자세를 자주·자립·자존의식으로 바르게 전환하며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적극 참여로서 혁신과 전진의 기풍 속에 우리들 공동운명을 민족적 역량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우선,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민족의 영구혁명”(박정희 1963, 27)이라고 규정하였고, “5.16 군사혁명의 핵심은 ‘민족의 산업혁명’과 ‘민족국가의 중흥 창업’에 있다”(박정희 1963, 259)고 주장하였다⁵⁾. 이어서 박정희는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오늘 우리의 주변이 정치 모든 부문에 걸쳐 「빈곤」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생기를 잃은 무기력과 침체된 양상을 시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혼돈과 침체 속의 후진의 굴레에서 결연히 벗어나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

5) 역사사회학자 그린필드는 민족의식과 민족주의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을 가져온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Greenfield 2003).

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초로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산운동, 경제적 검약증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부정적 전통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식이나 민족성도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1964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박정희에게서 민족의 재창조는 “민족의 기백과 정신이 더욱 새로워져야” 가능한 것이었다.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기이자 친구로서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론’에 커다란 영향을 준 황용주는, “박정희는 총칼로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의를 다진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의 원천은 결핍에 대한 한이었다. 뻗속 깊이 뿌리내린 결핍에 대한 한이 민족의 중흥을 꿈꾸는 이상가로 만들었다”라는 증언으로 박정희가 간직하였던 민족주의의 핵심을 묘사하였다(안경환 2013, 57).

그렇다면, 이 같은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되었을까?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가난했던 청소년기와 함께, 역설적이게도 1940년 그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경험한 일본식 교육과 군대 훈련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조선과 만주에서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황국신민화와 사회안정을 해치는 최대의 적으로 보고 탄압을 강화한 바 있었던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강상중·현무암 2010, 108) 1960년대 이후 박정희가 생각하는 다른 이름의 민족주의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박정희가 가졌던 한국 민족에 대한 인식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왜곡하였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는 그의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1962)』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무사주의, 안일주의의 생활 태도를 청산하여 근면한 생활인으로 ‘인간혁명’을 기하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없을까”(p.1)를 고민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는 또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당시 농민들의 정신 상태와 현실에 관하여, 1970년 4월 22일 지방 순시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비판한 바 있다 “그저 앉아서 못사는 게 팔자소관이라고 한탄하고 나

아가서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못산다고 원망이나 하고 자기가 못 사는 게 남에게 책임이나 있는 것처럼 불평이나 하는 농민들은 몇백 년 가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박정희의 역사관과 진단은 일제가 당시 조선 민족을 열등하고 정체된 민족으로 정형화한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는 같은 맥락에서 유교와 이승만 체제에 대하여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에게서 이승만 정권과 제2공화국은 유교의 전통에 사로잡힌 무능하고 부패한 구체제 이외의 다른 아니었다. 박정희는 그의 저서에서, “4.19 혁명은 표면상으로는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5.16 혁명은 민주당 정권이란 가면을 쓰고 망동하려는 내면상의 자유당을 뒤엎은 것이었다”(박정희 1963, 79)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리랑과 한의 정서도 박정희에게는 비판적 운명주의와 패배주의의 표상으로서 개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박정희 1962, 90; Rhyu 2015, 33-37).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박정희가 받은 교육, 그리고 만주군의 보병 소위로서의 군대 활동은 그의 성장 과정 및 성격적 특성과 결합되어 박정희의 민족주의와 군사쿠테타 이후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무시 못 할 이념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약에 대한 비판과 군국주의의 우월성 추구,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시장 자본주의와 재벌에 대한 비판 등은 박정희의 정신과 육체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Eckert 2016). 물론, 이 같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주군관학교와 군대 내에서 몇 안 되는 조선인 생도들이 비일본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많은 불이익과 차별은 그들의 민족감정과 자괴감, 그리고 인종적 민족주의를 강화하였던 측면이 있었고, 이는 박정희에게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Eckert 2016, 64, 91-93; 조갑제 1992, 88).⁶⁾ 박정희에게 남긴 만주의 영향이 얼

6) 당시 학도병으로 징집된 식민지 청년들 사이에는 대체로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군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위안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과 안경환(2013), 151-194를 참고. 반면, 2차대전 중 일본군을 위해 복무한 조선인 병사와 미군 내의 일본계 미국인 병사들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제국의 총력전 속에서 동일하게 겪

마나 강하고 연속적이었는지는 박정희의 여러 발언에서 확인된다. 5.16 이후 일본을 방문한 박정희를 만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박정희가 자신에게 “우리 젊은 육군 군인들이 군사혁명에 나선 것은 구국의 일념에 불탔기 때문인데, 그때 일본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을 떠 올렸다”고 고백한 것으로 회상한 바 있다(강상중·현무암 2012, 21). 만주군관학교에서 배운 일본 정신을 강조한 박정희의 이 같은 발언과 태도를 접하면서, ‘쇼와의 요괴’라고 지칭되고 만주국의 설계자라 할 수 있는 기시 노부스케마저도 당황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Eckert 2016, 310). 박정희의 만주에서의 경험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채택하였던 개발국가론 모델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⁷⁾.

III. 통화개혁 결정과정과 박정희의 민족주의

1. 통화개혁 구상에 반영된 박정희의 민족주의

그럼, 민족에 대한 위와 같은 박정희의 생각은 과연 통화개혁 과정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민족주의로 발현되었을까? 통화개혁을 구상하고 선택하였던 박정희의 내면에는 미국에 대한 경계감과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당시 박정희가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방향이자 그가 주관적으로 정당화해 온 민족의식의 핵심 내용이였다. 당시 박정희에게, 미국의 간섭은 민족의 자주의식을 위하여 경계해야 했고, 미국식의 자유주의와 시장 중

어야 했던 인종주의와 내셔널리즘을 분석한 후지타니의 연구(Fujitani 2011) 결과는, 만주군관학교에 다니던 조선인 장교들 사례를 연구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최근 만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한석정은 만주국에서 일어났던 개발과 진보의 근대(“만주 모던”)가 1960년대 박정희의 경제모델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식민주의는 근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그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국가는 신속과 효율의 존재였다”고 주장하였다 (한석정 2016, 47-50).

심적 시각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주의 목표 실현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선 당시 박정희가 바라본 미국은 두려움과 경계 및 반감의 대상이었다. 1960년 박정희가 부산의 육군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친구인 황용주와의 대화에서 “쿠테타를 하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가만있겠나?”라고 물었고, 국제정세에 밝은 황용주는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은 반공을 강하게 내세우는 성공한 군사쿠테타를 뒤집은 적이 없다고 그를 안심시킨 바 있다(안경환 2013, 323-324). 이는 박정희가 갖고 있던 미국의 존재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김종필은 ‘5.16 혁명공약’ 제1조에 반공을 국시로 적시한 것도 박정희의 좌익경력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김종필 2016, 25). 다른 한편, 박정희는 집권 이전부터 한국 군부와 한미관계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종신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군대는 우리 국민만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자유우방의 일원으로서 희생적으로 참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원조를 얻어먹어도 배짱을 튀겨 가면서 얻어먹을 수 있는데, 왜들 꼴사납게 꼬리를 치는지 모르겠어!”(김종신 2011, 90)라고 말하면서, 한국군 장성들의 저자세와 미국의 소극성 및 오만함에 분노하였다고 한다. 1961년 11월 박정희는 집권 이후 미국을 처음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검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서 외교적 결례일 수 있지만, 당시 당당한 자주외교의 상징적 행동(김판수 2011, 131)으로 비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지켜내고자 한 민족적 자존심과 오기를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박정희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와도 직결된다. 박정희는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원조에 대하여도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정희

1963, 227-229). 그는 사회격동기에 미국대사관을 드나들며 자신들의 안위를 강대국에 호소하는 다수의 구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가식적 민주주의’ 혹은 ‘사대적 민주주의’로 지칭하기도 하였다(김종신 2011, 236-237). 당시 박정희에게 미국은 한국의 절박한 이익보다는 자국의 안보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강대국이자 자본주의 본국에 불과했고, 이들에게 의존하는 구 정치인들과 부패한 장성들은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었으며, 이들 구체제와의 대결을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회복하고 조국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의 과업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박정희의 반감은 갑작스레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의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 일제 치하에서도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노력하였던 교사들의 영향(안경환 2013, 69-70),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강조한 만주에서의 군인 교육, 명치유신의 이념과 일본의 힘에 대한 박정희의 기질적 동경 등은 박정희가 미국에 대한 반감을 품게 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박정희의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자신의 이념과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구체화되었다. 1963년 9월 5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서울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첫 유세 연설에서 ‘민족적 민주주의’가 공식화되었다. 그는 근대화는 공업화와 산업개발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고 가식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식 민주주의, 즉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김종신 2011, 289)⁸⁾ ‘민족적 민주주의’론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의 기획과정에서부터 많은 생각을 공유하였던 대구사범 동기생인 황용주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부산일보 주필이자 편집국장으로서 황용주는 “공산주의만 반대한다면 아시아에서는 독재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정부의 주도 아래 경제개발

8) 당시 선거 연설에서 박정희는 민주당 후보인 윤보선을 ‘사대주의자’로 규정하였고 ‘밑바탕 없는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였다(김종신 2011, p.290).

을 리드해야만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민간주도로 해서는 백년하청이다”라는 확신을 박정희와의 만남에서 수차례 피력하였고, 박정희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였던 것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36).

한편, 통화개혁을 구상하게 된 박정희의 경제관의 뿌리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국가 주도적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정서는 청소년기의 성장과정과, 만주와 일본에서 받은 군사교육 등에 의해서 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주육군군사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당시 일본군 장교들이 존경하고 공부했던 사상가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일본에 현존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자 “지독한 파괴성”을 남겼고, 재벌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특권층이었다(Eckert 2016, 182). 당시 일본의 젊은 장교들 사이에 자본주의와 재벌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였는데, 박정희도 이 같은 사조와 분위기에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가 초기에 추진하였던 소위 내포적 공업화 전략 및 수입대체산업화 등에 국가 주도적 시각이 반영되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박정희는 공업화의 전제와 국내 자본 동원의 원천으로써 농업 육성과 농민의 구매력 증강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것도 만주국에 기원한 국가 자본주의적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사 노부스케는 박정희에게 만주국에서의 시행착오를 회고하면서, 당시 성공적인 공업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이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강상중·현무암 2010, 22). 1979년 농가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책에 반대하는 신현확 부총리와의 대화에서 박정희는 “내가 농업개발에 대한 집념이 있는데...”라며 농업과 농촌 및 농민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표하기도 하였다(신철식 2017, 272-273; 조갑제 1992, 33).

이같이 박정희가 지향한 민족주의의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바라는 시대적 맥락과 결합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우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와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장준하가 1961년 6월호 <사상계> 권두언에서 “4.19혁명이 입헌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혁명이었다면, 5.16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장준하 1961)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민족주의가 확산하였던 역사적 맥락을 보여준다. 게다가, ‘민족적 민족주의’론은 박정희가 1963년 선거전략의 하나로 처음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당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민족적 민족주의’가 공화당의 선거전략이나 독재자를 지지하는 논리를 넘어서, 산업화와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확산된 바 있었다(차기벽 1963). 그리고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추진하였던 재건국민운동은 그의 민족주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동원 운동이었다(재건국민운동본부 1963; 도진순 노영기 2004, 83-85). 박정희는 1967년 재건국민운동 창립 3주년 기념 치사에서, “모든 근대화작업은 국민정신의 근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재건운동의 사명을 조직활동과 교육운동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의 미래상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박정희와 그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민족성은 더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었고, 새롭고 근대화된 민족의식이 필요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모든 국민들이 상상된 정치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도록 민족주의를 동원하고 확산할 전략을 추구하였다.⁹⁾ 결국, 그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담론의 확산을 위한 정치적 프레임으로서 민족주의를 동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와 자립경제를 위하여 채택하였던 주요 정책들 중에는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제안되고 실시되었던 정책들도 적지 않았다. 박정희가 1962년에 설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인에 반영되었던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구매력 제고 중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내자 중심의 자

9) 박정희가 신문과 방송을 국가소유로 하고(김지태 1976; 한홍구 2012), 중앙정보부 주도로 <세대>지를 창간하여 운영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그가 어떻게 ‘상상된 공동체’로서 민족주의를 생각하였고, 그 민족주의를 자신의 정치이념의 확산과 실현을 위해 어떻게 동원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동원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 야심 찬 공업화 전략과 과도한 성장률 목표, 강한 국가개입 등의 전략은 대체로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제관이 반영된 정책으로 평가된다(기미야 다다시 2008; 류상영 1996; 김보현 2006). 또한 이 같은 정책들이 일본의 발전모델을 모방한 연속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Moon and Rhyu 1999). 하지만, 이 정책들은 당시 인구의 85% 이상이 농민이고 자본과 기술이 미비한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후진국 경제발전론이나 단계적 근대화론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러한 논리들은 이미 이승만 시대에도 한국이 취해야 할 경제전략으로 한국에 제안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한 다수의 한국인 학자나 관료들은 이 같은 경제정책을 한국에 소개하는 지적 채널이었다(정일준 2004; 정용욱 2004). 이 같은 현상은 박정희 시대에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겸 고문이었던 월트 로스토우(Walt W. Rostow)의 주도로 1965년에 출간된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 <국가정책문서: 한국>¹⁰⁾은 박정희가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원안에서 밝힌 주요 정책들과 유사한 내용이 미국 내에서 이미 군사쿠데타 이전부터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당시 발전단계가 낮은 한국과 같은 많은 후진국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유사한 진단과 정책 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시대와 박정희 시대에서 보인 경제정책의 운용방식과 사회적 동원전략, 그리고 정책의 성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10) "National Policy Paper on Korea(November 9, 1965)," Department of State, RG 59, Korea, Box. 306

2. 통화개혁 집행과정에 나타난 박정희의 민족주의

당시 통화개혁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보인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시장을 국가중심적으로 통제하려던 의식과 미국에 통화개혁을 비밀로 추진하려 했던 행동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그것이 민족의 자주외교와 자결을 보장하고 신속한 경제성장과 민족증흥을 달성하게 함으로써, 그가 생각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확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의장은 담화문에서 “이 통화개혁은 군사혁명의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한 대약진을 말하는 것”(조선일보, 1962/06/11)임을 강조하였다. 당시 유원식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위원은 언론 및 경제학자들에 대한 회견에서, “이번 통화 조치는 한국경제가 공업화에 거보를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퇴장자금이 양성화하면 내자 동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조선일보 1962/06/11)고 밝힘으로써 박정희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박정희는 또 다른 회견에서, “우리 민족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안정리에 이룩하여 누구나 다 일터를 갖고 향상된 생활을 하며 부강한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음성자금과 과잉구매력을 진정한 장기저축으로 유도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 즉 통화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다.”(조선일보 1962/06/17) 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민족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였다.

한편, 통화개혁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박정희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유원식 1986, 332). 하지만, 그는 통화개혁 단행에 대하여 실시 하루 전에야 미국에 알렸고, 그전에는 미국에 철저히 비밀로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신권의 인쇄도 미국이 아닌 영국에 비밀리에 의뢰하였는데, 당시 통화개혁 추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던 유원식은 그 이유로, “미국은 기밀보장이 잘 안 되는 나라였고, 무엇보다도 구정치인들과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파탄이 올 위구성이 많았다”(유원식 1986, 332)는 점을 밝혔다. 게다가 박정희 군사정부는 통화개혁 발표 이후에도 며칠간 미국

측 인사들로부터의 회의 요청이나 문의를 묵살하였다. 예를 들면 재정위원 유원식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하비트 정무참사관의 면담 요청을 여섯 번이나 거절하였다 한다 (유원식 1986, 336). 당시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을 반박하면서, 버거 주한 미국 대사는 “통화개혁안에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동 안의 실시기일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 개혁안은 미국 정부에서 검토될 것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미국 측의 의사가 한국 정부에 알려지게 될 것”(조선일보 1962/06/11)이라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희와 통화개혁 추진 세력은 왜 미국에 이토록 비밀을 유지하려 하였을까? 물론 국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0년부터 중앙정보부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실을 운영하였고, 통화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이 조직의 자문위원으로 있던 김정렴에게 유원식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1962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통화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최고 회의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었고, 실무진은 비밀준수 각서를 쓰고 참여하였으며, 준비팀은 근무장소도 시내 여관 등을 옮겨가면서 정보가 새지 않도록 하였다(김정렴 1991, 81-95; 김용식 1987). 심지어 통화개혁 발표 이후에 미국이 제기한 공개적 불만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분위기였다. 예컨대, 킬렌(James S. Killen) 유솜(USOM)처장은 유원식, 오정근, 박태준 등 최고위원들과, 김세련 재무부 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차관, 김정렴 재무부 차관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한국이 통화개혁을 취소하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할 것이고, 이에 대한 화답이 있을 때까지 한미간의 외교도 중단될 수 있다고 협박하였지만, 박태준 등 군인 출신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원식 1986, 336-337). 결국, 미국에 대하여 극도로 비밀을 유지하려 한 것은 당시 박정희와 핵심 최고 회의의 군인들이 가졌던 민족주의적 의식과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화개혁을 전후한 시기의 국내정치 요소도 이 같은 행동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정희가 내세운 통화개혁의 목표와 명분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갑작스러운 화폐 단위 변화에 불만이 없지 않았지만, 자금 동결률에 있어서, 일부 부유한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고 한다. 실제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라도, 최소한 통화개혁을 추진한 핵심 세력은 이 조치가 중산층 이하의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면 정부가 1961년 2월 8일에 체결한 <한미 경제기술원조 협정>에 대한 철회 및 반대 운동이 확산된 바 있었는데, 이는 구정 권들이 보여주었던 대미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비판하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운동이었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민족 자주적 이념과 주권의식이 고조되었다. 박정희 정부도 사회적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선명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박정희와 통화개혁 주도세력들이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동원하고 주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통화개혁의 좌절과 박정희의 민족주의

1. 박정희의 현실 비판과 미국의 압력

박정희 정부는 통화개혁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봉쇄자금을 전면적으로 해제함으로써 화폐단위가 10환에서 1원으로 변화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치는 철회되었다. 김현철 내각 수반은 기자회견에서, 통화개혁이 “국민 경제 활동의 정상화와 5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편재적으로 축적된 음성자금과 투기화할 수 있는 거액의 투기성 자금의 편재가 별로 없었다”며 철

회를 공식화하였다(조선일보, 1962/07/15). 거시경제적 조건과 정책실패를 철회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김보현 2006, 179; 배영목 2010)도 존재하지만, 이 같은 철회의 배경에는 통화개혁을 반대한 미국의 압력이 존재하였고¹¹⁾, 이 통화개혁의 철회는 단순한 한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박정희가 가졌던 민족주의가 구조적 제약하에서 변화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통화개혁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경제와 통화정책을 바라보는 미국의 신고전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박정희의 반미성향과 사회주의적 경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감이 작용하였으며, 통화개혁 과정에서 미국에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였던 박정희의 행동은 그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사실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의심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지속되었다. 1961년 6월 5일,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맥커너기(Walter P. McConaughy)가 주도한 한국 태스크포스팀은 한국에 대한 긴 보고서(FRUS, June 5, 1961)¹²⁾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박정희와 군사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담겨 있었고, 이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새롭게 등장한 박정희 정부를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공유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군사쿠데타의 주동자들은 특히 편협한 민족주의적 성향의 청년 장교들”(p.14)이라고 규정하였고, “이들이 반공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으나, 쿠데타 세력을 대표하는 박정희와 몇몇 장교들의 과거 공산주의와의 연관성 때문에 위의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p.14)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군사정부는 거칠고 단호하며 다루기 힘들 것이다. 이들의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은 미국의 지도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군사, 정치, 경제

11) 김보현은 봉쇄예금의 동결 해제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김보현 2006, 179). 경제적 현실에 대한 판단 오류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한미간의 금융시장과 경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와 여기에서 오는 갈등의 정치적 맥락 및 민족주의적 배경 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2) “Report of The Korea Task Force(June 5, 1961),” RG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에서의 한국의 독립(independence)을 확고히 추구할 것이다”(p.35)라고 예견한 바 있다. 미국은 이어서 박정희 군사정부가 미국이 이전 정부와 체결하였던 재정 및 조세 등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이었고, 이들의 민족주의적 열의(nationalist zeal)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¹³⁾ 이 같은 인식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1963년 7월 주한 미국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김종필 등 젊은 장교들이 미국의 충고를 빈번하게 거부한 바 있으며,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였던 것이다.¹⁴⁾ 이 전문에서 주한 미국대사는 이들 청년 장교들의 정치이념에 대하여 “격정적인 극단적 민족주의”와 “가까스로 숨겨진 반미주의”라고 표현하였다.

박정희와 일부 장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의구심은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통화개혁에 대한 철회 압력으로 연결되었다. 정치적 경계심과 별도로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이 5.16 직후부터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이었고 매우 구체적인 경제원조와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다. 1961년 6월 9일, 미국 국무장관 러스크와 대통령 경제자문관 로스토우(Walt W. Rostow)에게 보고된 한국문제 태스크포스팀의 보고서¹⁵⁾는 제3세계 경제개발과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내 한국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시장과 금융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한 신고전주의적 사고방식은 널리 공유된 지적 전통이었고, 시장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로스토우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재정과 환율의 안정화, 기업구조의 합리화,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 관련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13) “Memorandum for Mr. McGeorge Bundy, The White House: Presentation of Credentials by Korean Ambassador Il Kwon Chung(Jun 29, 1961),” FRUS, Vol.2.

14) “한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1963.7.15.),” FRUS 1961-1963, Vol.2, p.653(홍석률 2004, 195).

15) “Memorandum for Dr. Walt W. Rostow, The White House: The Task Force Report on Korea and the Question of Goals(June 9, 1961),”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1-1963.

현실적이면서도 미국의 정책목표와 일관되는 목표를 가지도록 조인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¹⁶⁾

이 같은 자유주의적 경제관은 통화개혁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심 논리로 작용하였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통화개혁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 한국의 통화개혁에 반대할 수 없지만, 한국의 예금 봉쇄에 대하여 미국이 아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장 박정희를 만나 아래와 같은 미국의 견해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¹⁷⁾ “미국 정부는 화폐단위 전환에 대한 기술적 이점에 대하여는 납득하고 부정축재 자금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 봉쇄의 유용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생산업체의 은행 자금을 장기간 박탈하는 것은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가들에 대한 무거운 자금 징수는 불가피하게 외국자본 유치 전망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것이 해외 관찰자들에게 자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무엇보다도 이 혁명정부의 국제적 평판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정당하게 개설된 은행 계정에 대한 동결이 되도록 빨리 해제되고, 화폐단위 전환과 관련하여 발표된 공식 담화문들 및 제반 규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중요한 관련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할 것을 희망한다.”¹⁸⁾ 이 구절은 통화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 유솜 처장 킬렌은 정래혁 상공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 조치는 개인기업을 묶어 놓으려는 정부의 이상한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와 민간자본

16) “Summary and revision of recommendations of Task Force Report on Korea(June 12, 1961),”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17) “From Rusk to Ambassador Seoul(June 8,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이 전문은 너무 시급하게 준비되어서 충분히 편집도 안된 상태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미국이 미리 협의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이 문건에는 “Eyes Only Ambassador”로 되어 있어 문건을 미국 내부에서도 비밀로 하고자 하는 속내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Joint State/AID Message For Berger and Killen(June 29,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3-5.

은 미국이 믿는 경제 제도를 파괴하는데 투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정 장관은 이를 박정희에게 전달하여 더욱 현실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하였다.¹⁹⁾ 또한 AID 처장 라이스 해리만(Rice Harriman)은 정일권 대사에게 통화개혁에 대한 사전협의를 없었던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박정희가 한국이 예전 정부처럼 미국 측과 솔직하고 빈번한 의견 교환과 자문을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만일 미국의 이러한 노력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정책을 다시 평가할 것”²⁰⁾이라고 압박하였다. 이어서 미국무성은 AID와 공동으로 마련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대한 원조계획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국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원조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공식화하기도 하였다.²¹⁾ 킬렌은 예정되었던 철강투자단의 방한을 통화개혁이 철회될 때까지 미룰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²²⁾ 버거 대사는 유원식과의 대담에서 신권 인쇄를 영국에 의뢰한 것에 대하여도 미국이 지원한 달러를 사용하면서 인쇄를 왜 미국에 맡기지 않았는지 불만을 쏟아냈고, 유솜 처장 킬렌은 철회하지 않으면 한미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며 당장 주한 미국인들의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식 1986, 338-339). 이 같은 미국의 압력은 박정희 정부가 통화개혁을 철회하는 정치적 배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주한 미국 대사는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7월 7일 전문²³⁾에서, “우리는 모든 기회마다 한국의 주요

19) “From Ambassador Seoul to Secretary of State(June 21,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20) “From Ambassador Seoul: Limit Distribution For Berger from Harriman(June 21,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21) “From Ambassador Seoul: Joint State/ AID Message For Berger and Killen(June 27,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22) “Joint Embassy/ USOM Message: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July 2,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23) “From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July 7,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인사들에게 우리의 견해를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우리의 압력이 통화 봉쇄 규정을 변경하는데 작용하고 있다”라고 자평하였다.

2. 구조적 제약 속 박정희 민족주의의 좌절과 변화

통화개혁의 철회는 당시 박정희가 갖고 있던 그의 민족주의가 변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럼 이 정책의 실패가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구체적으로 그의 의식과 행동 패턴 그리고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미국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5.16 직후부터 박정희와 쿠테타 주도세력의 사회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었다. 미국 대사 맥카너기는 4.19 직후부터 급속히 대두된 통일운동이나 한미원조협정 반대운동 등에 대하여 “전쟁과 재건 때문에 지체된 민족주의가 지금 한국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홍석률 2004, 198)고 진단했었다. 심지어,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참모인 로버트 잔슨(Robert H. Johnson)은 4.19로 인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5.16 군사쿠테타에 의한 장면 정권의 붕괴도 모두 “점증하는 민족주의의 표현(홍석률 2004, 199)”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대사는 국무성에 보내는 전문에서,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건설적인 민족주의 의식이 군사정부 하에서 급속히 성장하였고” “현 집권세력은 한국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에는 확고하다”는 점을 워싱턴이 명심해야 한다고 미국무성에 조언하기도 하였다.²⁴⁾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도 1963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한국 정세 비밀보고서에서 대선 주자의 하나인 군부 지도자 박정희를 민족주의자로 규정한 바 있다.²⁵⁾ 이 같은 인식하에, 미국은 박정희와 한국 사회에 퍼져있

24) “From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6,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2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pecial Report: Background for Elections in South Korea(October 11, 1963),”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는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민족주의적 성향을 약화하고 관리 내지는 활용하려는 세심한 조치를 취하여 나갔다.

사실 원조자금 사용이나 경제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미국 정부와 박정희 정권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줄곧 존재하였다. 당시 한미간의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과 한국 현실에 대한 시각 및 정책 차이 등은 박정희에게는 커다란 직접적 간접적 구조적 제약과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통화개혁 발표 하루 전인 1962년 6월 8일, 박정희는 미국 대사에게 이 계획은 1961년 9월부터 준비해 왔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조치를 빠뜨리지 않았다²⁶). 통화개혁이 진행되는 짧은 기간에도 박정희 정부가 AID 자금 및 원자재 확보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느끼는 구조적 제약과 압력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1962년 7월 6일 각의에서, 박정희 정부는 통화개혁에 의한 기업 계정 봉쇄로 AID 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민간기업이 AID 원자재 도입을 중단없이 추진하도록 봉쇄계정에 묶여 있는 자금을 담보로 인정해 줌과 동시에, 애초에 은행보유 달러로 구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관수물자와 국영기업체 수요물자를 AID 자금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의결하고 다음 날 바로 발표하고 실시하였다²⁷). 통화개혁으로 인한 계정봉쇄로 AID 원자재 구매가 늦어지거나 중단되면 한국의 경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 AID 관련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박정희에게 조속한 민정이양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정치적 압력과 함께 AID 원조 축소 및 중단에 대한 위협 발언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불안감과 압력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하여 AID 원자재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경제적 압박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통화개혁이 진행되는 기간 박정희 의장이 각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한 문건

26)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June 8,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27) 경제기획원 장관. "AID 원자재 도입을 촉진키 위한 긴급조치(1962.7.7.)," 대통령기록관.

들에는 통화개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던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및 주요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미국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박정희의 기존 생각과 행동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⁸⁾

박정희가 통화개혁을 철회한 직후부터 보인 행동 패턴은 그 전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미국 대사관의 경제참사관 파파노(Albert E. Pappano)는 통화개혁 철회 직후 이 정책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김정렬 차관이, “현 정부에는 안정화 사고를 가진 관료들이 드물지만, 자신은 1962년의 남은 기간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추구하기로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 같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과 유ش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²⁹⁾ 김정렬도 미국 대사에게 한국에는 능력 있는 관료가 적다고 말함으로써 통화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개혁 실패 이후 경제기획원장과 부원장에는 이승만 정권에서 핵심 관료를 역임했던 김유택과 차균희가 임명되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는 민주당 정권에서 부총부 차관을 지낸 유창순이 임명되었다. 이 같은 인사는 버거 미국 대사가 오래전에 박정희에게 추천하였던 내용을 박정희가 통화개혁 철회 이후에 반영한 것이었고, 박정희는 이 인사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 대사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 미국대사는 김유택과 유창순에 대하여 본인이 박정희에게 추천하였던 내용을 박정희가 기억하여 이번에 반영하였다고 흡족해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과 다시 일하게 된 점을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워싱턴에 보고 하였다.³⁰⁾ 이후 이들 전문 경제관료 출신들은 정래혁, 유원식, 송요찬 등 군인

28) 박정희 의장. “통화개혁에 수반한 문제점에 관한 건(1962.6.2.)” 대통령기록관.

29) “The Stock Market, Currency Reform, and Ministry of Finance Personnel Developments(July 20, 1962),”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60-62, Entry CGR 56-63, Box 35, 36.

30) “From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July 9, 1962),” RG 5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Central Files, 1960-1963. 이날 면담에서 박정희는 유원식, 손창규, 김용순 등 최고위 재경위원회에서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곧 모두 병영으로 돌아갈 것이

출신들을 대신하여 경제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유원식은 통화개혁 철회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제 혁명은 끝났고 앞으로는 반동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면서, “한국경제는 자립경제를 지향하던 기본방향에서 식민지 경제, 즉 종속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유원식 1987, 340)³¹⁾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박정희 자신은,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자아비판과 반성의 사례로 통화개혁 실패를 거론하면서, “실패치고는 너무나 무자비한 것이었다”(박정희 1963, 141)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1964년 1월 10일 최초로 국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군사정부 시절 자신이 추진하였던 통화개혁을 ‘실책’으로 자인하고 이를 만회할 결의를 다시 피력하였다.³²⁾

통화개혁의 철회는 박정희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수반하였는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바뀌고 경제정책이 수입대체형에서 수출지향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전조이자 계기로 연결되었다. 이는 박정희의 의식과 내면을 지배하였던 일본이라는 과거의 제국이 박정희의 정책과 외양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압박하였던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과 충돌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기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물론 그가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의식과 형식에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남겼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전략이나 민족주의를 실현할 정치적 경제적 정책의 외형은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변모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내면의 의

라고 버거 대사에게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당분간 극도로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31) 유원식은 그의 회고록에서 버거대사가 박정희에게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통화개혁 철회의 댓가로 산업개발공사 설립자금으로 4천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거짓으로 회유함으로써 박정희가 돌연 통화개혁을 철회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는 핵심 인사인 유원식과도 상의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동결계정을 모두 해제하도록 재무차관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 32)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 (1964.1.10).”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는 이 연설에서 “당초 의욕적으로 책정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 밝혀 5개년 계획의 수정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식 및 민족적 정체성은 쉽게 변화되거나 사라지기 힘들다(Moon 2012; 강원택 2020).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포항제철 건설 사업(Rhyu and Lew 2011), 1970년대 주한 미군 철수를 계기로 박정희가 추진한 자주국방과 핵 개발 시도 등은 연속되었던 민족주의적 의식이 다시 발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박정희와 민족주의의 변화와 연속성

이 글에서 필자는 그동안 한국에서 반복되었던 다양한 정치적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었던 박정희와 민족주의를, 한 역사적 사건을 풍부하게 묘사함으로써,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민족주의 이론으로 역사를 거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한 사건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 한국 사회에 퍼져있었고 박정희가 간직하였던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다층적 요소인 의식, 정책, 제도 등의 차원에서, 박정희와 그의 정부가 추구하고자 한 민족주의가 어떻게 기원, 형성, 동원, 확산, 좌절, 진화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그려보았다.

통화개혁의 추진과 철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박정희의 의식과 행동은 박정희에게 내재되어 있었고 그가 동원하였던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 확산, 그리고 진화를 응축해서 보여주었다. 박정희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식민지 청소 년으로서의 비애, 만주에서의 경험, 권력의지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화개혁 과정에서 박정희가 가졌던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시장 및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요약되었다. 그에게는 그와 같은 방식의 통화개혁이 대외적인 민족자주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민족주의의 내용이자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통화개혁은 결국 미국의 압력과 그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목표 설정과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과도한 경제성장에서 경제

안정, 그리고 수입대체형에서 수출지향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그의 의식과 행태에서 나타난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과 당시 전개되었던 복잡한 역사적 사실과 현상들을, 의식, 제도 그리고 정책 등 민족주의의 주요 수준들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려는 시도였다.

참고문헌

- 강상중·현무암. 2010.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서울: 책과 함께.
- 강원택. 2020.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15년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https://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 기미야 다다시. 2008. 『박정희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서울: 후마니타스.
-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울: 갈무리.
- 김용식. 1987. 『희망과 도전-김용식 외교회고록』. 서울: 동아일보사.
- 김재춘. 1983. “5.16혁명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신동아』. 10월.
- 김정렴. 1990. 『김정렴회고록-한국경제정책 30년사』. 서울: 중앙일보사, 중앙경제신문사.
- 김종권. 1992. “로스토크 박사의 개발연대 비화.” 『월간조선』. 12월, 454-464.
- 김종신. 2011. 『영시의 햇불-박정희대통령 수행기자 7년의 기록』. 서울: 기파랑.
- 김종필. 1962. “5.16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신사조』. 5월.
- 김종필. 2016. 『김종필 증언론 1』. 서울: 와이즈베리.
- 김지태. 1976. 『나의 이력서』. 서울: 한국능률협회.
- 김판수. 2011. 『시인 신동문 평전: 시대와의 대결』. 서울: 북스코프.
- 노영기. 2004.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서울: 선인, 107-156.
- 도진순·노영기. 2004. “군부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서울: 선인.
- 류상영. 1996.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정치경제적 맥락.” 『한국정치학회보』. 30집 1호,
- 박정희. 1962. 『우리 민족의 나갈 길-사회재건의 이념-』. 서울: 동아일보사.
- 박정희.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향문사.

- 박정희, 1970. ‘지방장관회의 유시 (4.22).’159,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7집, (1970.1-1970.12).
- 박현채 · 정창렬 편. 1985. 『한국민족주의론 3』.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박희범. 1961. “후진국에서의 경제계획.” 『사상계』. 3월호.
- 박희범. 1962. “경제자립을 위한 외자도입.” 『최고회의보』. 제4호.
- 배영목. 2010. “군사정부의 통화개혁,” 『경제발전연구』. 16권 1호, 117-141.
- 송건호 · 강만길 편. 1982. 『한국민족주의론 1』.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송건호 · 강만길 편. 1983. 『한국민족주의론 2』.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서중석. 1992.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와 비평사.
- 서중석. 2016.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6: 박정희의 배신의 정치, 거꾸로 된 혁명과 제3공화국』. 서울: 오월의 봄. 신철식. 2017. 『신현화의 증언』. 서울: 메디치.
- 안경환. 2013.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 유원식. 1986. 『5.16비록: 혁명은 어디로 갔나』. 서울: 인물연구소.
- 이병주. 1991. 『대통령들의 초상』. 서울: 서당.
- 이선근. 1977.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서울: 조선일보.
- 이주일. 1961. “당면한 경제정책.” 『최고회의보』. 창간호(8월)
- 장준하. 1961. “권두언.” 『사상계』. 6월호
-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서울: 책세상.
- 정용욱. 2004. “5.16 쿠데타 이후 지식인의 분화와 재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 와 지식인』. 서울: 선인. 157-185.
- 정일준. 2004. “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1960년대 한국사회의 근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서울: 선인. 21-57.
- 재건운동본부. 1963.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최고회의보』. 3월호, 142-173.
- 조갑제. 1992. 『박정희 1』. 서울: 까치.
- 조동걸 · 한영우 · 박찬승 편. 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차기벽. 1963. “오용된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결코 선거구호에 그칠 수 없다.” 『사상계』. 7월호

- 최상룡. 1989.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습』. 성남: 현대사연구소.
- 한석정. 2016. 『만주모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한홍구. 2012. 『장물바구니- 정수장학회의 진실』. 서울: 돌아온 산.
- 한홍수. 2015. 『도전과 응전의 한국민족주의』. 서울: 옥당.
- 홍석률. 2000. “5.16쿠데타의 원인과 한미관계.” 『역사학보』. 168집.
- Anderson, Benedict. 201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 Bergholz, Max. 2018. “Thinking the Nati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by Benedict Anders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April).
- Areton, Albert and Gianluigi Galeotti, eds. 1995. *Nationalism and Rational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uilly, John. 1994. *Nationalism and The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feld, Liah. 2001. *The Spirit of Capitalism: Nationalism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s. 2017.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n, Chung-in. 2012. “Unraveling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Minjok and Gukmin,” Gilbert Rozman, ed. *East Asian National Identity: common Roots and Chinese Exceptionalis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19-237
- Moon, Chung-in and Sang-young Rhyu. 1999. “Overdeveloped Stat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in the 1950s: A Reinterpretation.” *Asian Perspective*. 23(1): 179-203.
- Rhyu, Sang-young. 2015. *The Spirit of Korean Development*.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Rhyu, Sang-young and Seok-jin Lew. 2011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
Byung-kook Kim &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322-344.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mith, Anthony D. 2010.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Cambridge: Polity.

Takashi Fujitani. 2011. *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Umut Özakirimli. 201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투고일: 2020.10.23. 심사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01.
--

Park Chung Hee's Monetary Reform in 1962 and Korean Nationalism

Rhyu, Sang-young | Yonsei University

The monetary reform pushed by Park Chung Hee in June 1962 failed merely a month following its implementation. Notwithstanding, the political dynamics underlying the origin, progress, and ultimately, the failure of this reform reflected the notion of nation that Park Chung Hee imagined and the nationalism he wished to mobilize. Park Chung Hee's grief stemming from his experiences as a colonial youth, a Manchuria Military Academy cadet, along with his strong will to power histor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 his thoughts of nation and nationalism. Throughout this entire process, Park Chung Hee was notably wary of the US, as indicated by his antagonism towards her ideas on the market and liberal democracy. In large part due to U.S pressure and his own miscalculations regarding the financial market, Park Chung Hee, keeping his intentions hidden from the U.S., failed to accomplish the monetary reform. In consequence of its fru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and his consciousness and behavior concerning nation and nationalism began to exhibit significant changes. This case study seeks to interpret these controversial discussions regarding Korean nationalism through various different len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xisting theoretical literature.

Key Words | Park Chung Hee, Monetary Reform, Nation, Nationalism, U.S.